

제8회 춘천오픈 전국대학동아리 테니스대회

제8회 춘천오픈 전국대학동아리테니스대회가 9월 28~29일 춘천 송암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민일보와 춘천시대학테니스연맹이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첫날 단체전, 둘째 날 개인전으로 전국의 대학 테니스동아리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개회식에서 전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캐서린 하킴이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매력 자본'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장은 "경제, 문화, 사회 자본에 이어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제4의 자본이 바로 매력 자본이다"며 "전 세계 성공한 사람을 분석해 보니 공부 잘 한 사람보다 매력 자본을 갖춘 사람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전했다. 또 "매력 자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머감과 친화력, 사교성 등을 갖춰야 하지만 그중 특히 건강미가 성공의 기본적인 요인이다"며 "여러분들은 테니스로 단련된 건강한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남자 단체전 금·은배부, 개인전 금·은배부와 여자 단체전, 개인전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치러졌다. 코트 60면, 도우미 40명, 닭갈비 250킬로그램, 불고기 150킬로그램, 생맥주 3만cc, 1년 동안 한광호 회장이 준비했다는 행운상품 400점. 일반적인 대학생대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학생들은 푸짐한 춘천의 인심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 🍗

글 사진_송선순 객원기자

① 단체전 14팀으로 최다 출전을 한 고려대와 연세대, 그리고 가장 먼 곳에서 온 부산교대팀에는 한광호 춘천대학연맹 회장이 1년 전 손수 담은 한말피리 대추주를 선물로 증정했다 ②자전거를 행운상으로 받은 선수들 ③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④강원대 교수로 재직 중인 송영환 춘천시테니스협회장은 "학창시절에 라켓을 빨리 잡아 내 인생이 행복해 지고 대학교수도 테니스 때문에 더 빨리 된 것 같다"며 "테니스를 통해 건강한 몸은 물론이고 인맥 관리도 잘해 더욱 신바람 나는 대학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⑤군자는 남의 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소인은 남의 악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君子喜揚人善, 小人喜揚人不善 군자희양인선, 소인희양인불선)는 구절이 쓰인 권오영 작가의 화각 작품은 연세대학교 학생에게 돌아갔다 ⑥400여점의 행운상품은 너무 많아 개회식에서 다 뺐을 수가 없었다. 라켓과 항공권, 운동화와 의류, 자전거 그리고 화각 작품 등을 뺐은 후 ⑦대회기간 중 닭갈비 파티가 열렸다 ⑧금배 우승 서울과기대 이슬팀 ⑨금배 준우승 연세대 진리팀 ⑩금배 3위 육사팀 ⑪은배 3위 한국외대 ⑫은배 3위 부산교대 ⑬여자부 우승 이화여대 새싹팀 ⑭여자부 준우승 연세대 진리팀 ⑮여자부 3위 경희대 러비스 ⑯여자부 3위 서울대학교



